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 번호

제 () 선택

1.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200601

(가) 윤리학은 의무론, 공리주의, 덕 윤리와 같이 인간이 준수해야 할 근본적인 도덕 원리에 대한 이론적 탐구를 주요한 과제로 삼아야 한다.
 (나) 윤리학은 생명 윤리, 환경 윤리, 정보 윤리와 같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윤리 문제 해결에 우선적으로 관심을 두고 연구해야 한다.

- ① (가): 윤리학은 도덕 관습에 대한 객관적 기술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 ② (가): 윤리학의 학문적 성립 기능성의 탐구가 윤리학의 핵심 목표이다.
- ③ (나):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제적 연구가 필요하다.
- ④ (나): 윤리적 문제의 해결은 가치를 분별하는 과정과 무관하다.
- ⑤ (가), (나): 윤리학은 도덕 언어의 의미 분석을 중점 과제로 삼는다.

2. 사회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0918(윤사)

갑: 분배 정의에 관한 기존의 원리들은 받는 사람에게 관심을 주는 반면 주는 사람의 권리는 무시한다. 그러므로 분배 정의를 논함에 있어 '~에 따라 받을 만한'이라는 표현을 '~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진'이라는 표현으로 바꿔야 한다.
 을: 부와 소득의 분배 그리고 권한 있고 책임 있는 직위와 직책은 기본적인 자유 및 기회의 평등 모두와 양립 가능해야 한다. 사회적 가치들은 그것의 불평등한 분배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한 평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 ① 갑: 소유의 정당성 판단에는 역사성의 원리를 적용해야 한다.
- ② 갑: 천부적 재능으로 취득한 이익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없다.
- ③ 을: 최소수혜자의 이익은 정의의 원칙 함의 이전에 보장된다.
- ④ 을: 원초적 입장의 함의 당사자들은 자기 삶의 전망에 무관심하다.
- ⑤ 갑, 을: 분배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할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3.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신규 문항

갑: 모든 직업은 소명(召命)이며 노동은 신과 이웃에 봉사하는 것이며, 인간 사회에 유익을 주는 것보다 신에게 더 칭찬받을 만한 일은 없다.
 을: 국가에서 통치자는 지혜를, 방위자는 용기를, 생산자는 절제를 발휘하여, 여러 구성원들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을 정의(正義)라 한다.

- ① 갑: 구원 여부를 인간의 노력으로는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
- ② 갑: 직업 노동을 신이 내린 명령으로 간주하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 ③ 을: 국가 내 계층 간 자유로운 역할 교환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 ④ 을: 통치자는 지혜의 덕뿐 아니라 절제와 용기의 덕도 갖추어야 한다.
- ⑤ 갑, 을: 사회적 분업은 노동의 본질에 위배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4. (가)의 고대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으로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은 것은? 170604(윤사)

(가) 갑: 참된 도(道)에는 이름이 없다. 도는 통나무처럼 소박하지만 천하의 누구도 도를 부릴 수는 없다. 제후와 왕들이 이를 터득하면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백성들이 저절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을: 이름이 바르지 않으면 말[言]에 순서가 없게 되고, 말에 순서가 없으면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禮樂)이 바로 서지 않아서 형벌의 집행이 공정하게 되지 않는다.

(나)

- ① A: 사람들이 현자(賢者)를 숭상하지 않는 사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 ② B: 도(道)를 움직임과 작용이 없는 자연 만물의 법칙으로 보는가?
- ③ B: 사람들이 충서(忠恕)의 덕을 실천하면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가?
- ④ C: 친소(親疏)를 구분하지 않는 것을 참된 사랑의 시작으로 보는가?
- ⑤ C: 인의(仁義)를 버리면 오히려 백성이 도덕적으로 된다고 보는가?

5. (가) 사상의 입장에서 (나)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81110

(가) 강하다, 길다, 확실하다, 빠르다, 효과적이다, 순수하다—쾌락과 고통 속에서 이런 특징들을 지속시켜라. 만약 사적인 쾌락이 너의 목적이라면, 그런 쾌락을 추구하라. 만약 공적인 쾌락이 너의 목적이라면, 그런 쾌락을 확대하라.

(나) 고등학생인 A는 같은 반의 B와 말다툼을 했다. 집에 돌아와서도 화가 가라앉지 않은 A는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학급 채팅방에서 B를 상대로 * 사이버 불링을 같이 하자고 부탁해야 할지 망설이고 있다.
 * 사이버 불링: 정보 통신 기술을 통해 의도적이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하는 것

- ① 사이버 불링이 공리를 극대화하는 것인지 고려하세요.
- ② 사이버 불링이 자연법에 부합하는 것인지 고려하세요.
- ③ 사이버 불링이 덕성 함양에 기여하는 것인지 고려하세요.
- ④ 사이버 불링이 모성적 배려를 실천하는 것인지 고려하세요.
- ⑤ 사이버 불링이 인간을 목적으로 대우하는 것인지 고려하세요.

2 (생활과 윤리)

사회탐구 영역

6. 동양 사상 (가), (나)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90611

(가) 삶도 내가 원하고 의로움 또한 내가 원한다. 이 둘을 함께 얻을 수 없다면, 의로움을 취하지 어찌 구차하게 살겠는가. 죽음도 내가 싫어하는 것이지만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죽음조차 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이 슬픈 일인가? 생명이란 본래 자연에서 벌린 것이니 마치 티끌과 같고, 삶과 죽음의 이치는 밤낮의 변화와 같다. 이제 우리는 그 자연스런 변화를 바라보노니, 그것이 내게 왔다고 해서 어찌 싫어하겠는가.

- ① (가): 생(生) 그 자체가 어떤 가치보다도 더 소중하다.
- ② (가): 도덕적 가치가 삶과 죽음의 선택 기준이 될 수 있다.
- ③ (나): 삶과 죽음은 자연의 과정이 아니라 응보의 과정이다.
- ④ (나): 삶과 죽음의 악순환을 끊는 것이 이상적 인간의 경지이다.
- ⑤ (가), (나): 죽음 이후를 대비하여 도덕적 이치를 탐구해야 한다.

7. 다음 가상 편지의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181102

○○에게
 얼마 전 자네가 가정을 이루었다는 말을 듣고 몹시 기뻐다네. 공자는 "경(敬)으로써 자신을 수양하고, 자신을 수양하여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라고 말했다네. 이러한 가르침은 ㉠간의 도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네. ㉠은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오랫동안 성장하여 만난 두 사람이지만, 자네가 상대를 아끼는 마음으로 손님을 대하듯 존중한다면 어찌 백년해로(百年偕老)할 수 없겠는가? ... (후략)...

<보 기>

- ㄱ. 혼인(婚姻)을 통해 맺어진 가족 관계이다.
- ㄴ. 상경여빈(相敬如賓)을 실천해야 하는 관계이다.
- ㄷ. 향렬(行列)에 따라 서로 역할을 분담하는 관계이다.
- ㄹ. 동기간(同氣間)으로서 배려해야 하는 가족 관계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200908

갑: 각자의 직분을 나누는 것이 예법(禮法)의 핵심이다. 농부, 공인, 상인은 각 분야에 정통하지만, 그 분야를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다. 도(道)에 정통한 사람은 이 세 가지 일을 하나도 못해도 이 세 가지 일을 다스릴 수 있다.
 을: 마음을 쓰는 사람[勞心者]은 다스리는 사람이고, 몸을 쓰는 사람[勞力者]은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다. 다스림을 받는 사람은 남을 먹여 살리고, 다스리는 사람은 남에 의해 먹고 산다. 이처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이치이다.

- ① 갑: 예(禮)에 맞게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 ② 갑: 군자는 도를 익혀야만 자신의 일을 완수할 수 있다.
- ③ 을: 다양한 직업들 사이에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성립한다.
- ④ 을: 몸을 쓰는 사람은 항산(恒産)에 앞서 항심(恒心)을 지녀야 한다.
- ⑤ 갑, 을: 모든 사람은 각자가 맡은 직분과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9. 다음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200906

개인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익을 고려하기도 한다. 그러나 집단은 개인이나 다른 집단과의 관계에서 상대의 이익에 주목하기보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관철하려는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왜냐하면 개인들의 이기적 충동은 개별적으로 나타날 때보다 하나의 공통된 충동으로 결합되어 나타날 때 더 강하게 표출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인간은 개인적으로는 도덕적이지만 집단적으로는 비도덕적인 특성을 나타낸다.

- ① 집단 간 힘의 차이를 정치적 방법으로 조정해서는 안 된다.
- ② 개인과 사회의 최고의 도덕적 이상 간의 모순은 절대적이다.
- ③ 집단 규모가 커질수록 충동을 제어하는 이성의 힘은 커진다.
- ④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합리성에 부합하는 강제력을 권고한다.
- ⑤ 집단 간 관계는 각 집단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하여 수립된다.

10.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신규 문항

갑: 군자는 그릇처럼 살지 아니한다[不器]. 군자는 작은 것에 대해 알 수는 없으나 큰 임무를 받을 수 있고, 소인은 큰 임무를 받을 수는 없으나 작은 것에 대해 알 수 있다.
 을: 각자는 타고난 성향에 따라 한 가지 일에 배치되어야 한다. 이는 각자가 폴리스에서 자신의 한 가지 일에 종사함으로써 여럿 아닌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 기>

- ㄱ. 갑: 임금과 백성은 모두 직분 수행에 필요한 덕을 갖춰야 한다.
- ㄴ. 을: 통치자는 생산자와 달리 사적 재산을 가져서는 안 된다.
- ㄷ. 을: 통치자는 모든 사회 구성원의 의사에 따라 국가를 운영해야 한다.
- ㄹ. 갑, 을: 구성원 간 역할 분담은 이상 사회 실현의 충분조건이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